70년 역사 광동학원 '인성교육 선봉장'

10월 4~10일 '건학 70주년 기념행사' 개최해 역사 조명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인재불사를 펼쳐온 광동학원이 70년이란 장대한 역사를 기록했다. 현재는 명실상부 경기 북부의 명문학교로 자리매김한 광동학원은 이를 기점으로 '인성교육 선봉장'이 될 것을 천명했다.

학교법인 광동학원(이사장 일면)은 광복 이듬해인 1946년 운허 큰스님이 현 봉선사(경기 남양주) 터에 세웠다. 운허 스님은 1915년 '배달학교'를 세워 후진 양성에 힘쓰는 한편, 1919년 독립군정기관지 〈한족신보〉를 발행하고 1920년 독립운동단체 '광한당'을 조직했다. 그리고 스님은 마침내 1946년 봉선사 등 5개 사찰 재산을 규합해 광동중학교의 효시인 '광동초급중학교'를 설립했다.

이후 1951년 전란 속에 학교가 불타는 등 위기를 맞았지만 "건물이 불타도 교육은 멈출 수 없다"는 당시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의 의지에 따라 민가와 천막 등서 수업을 이어나갔다.

2016년 현재 광동학원은 남양주 광동고등학교 · 의정부 광동고등학교 · 광동중학교 총 3개 학교로 구성되며, 졸업생은 총 4만2883명(광동중 1만7500명 · 남양주 광동고 1만2340명 · 의정부 광동고 1만2963명)에 달한다. 특히 남양주 광동고는 체육관 '운악관'과 기숙사 '불천학사' 등 탄탄한 기반시설을 갖출 뿐 아니라, 매년 수도권 내 4년제 대학 진학률이 45%에 이른다.

그렇다면 불교종립학교로서 지역의 명문사립으로 자리 잡은 원동력은 무엇일까? 광동학원 이사장 일면 스님은 교직원과 학생들, 동문들이 하나 된 '일심동체'를 그 비결로 꼽았다.

일면 스님은 "교직원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학생들은 본분에 충실해 학업에 매진한다. 또 동문들은 졸업 후 지역 유지로 자리 잡아 '광동의 자부심'이 돼 준다"며 "특히 불교학교로서 교과 뿐 아니라 인성교육에 힘쓴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밝혔다.

이처럼 일면 스님은 1993년 광동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자비심'을 강조한 교훈과 교표를 만드는 등 불교종립학교로서 위상을 바로잡기위해 노력했다.

이와 관련 김석희 광동중 교장은 "일면 스님은 3개 학교에 법당 뿐 아니라 교법사실을 설치하는 등 교법사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며 "이에 3개 학교가 '불교종립 광동학원'이란 이름아래 끊임없이 정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실 '불교종립'이란 타이틀은 한 때 동문회 및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교육기관이 지나치게 종교 편향적이 될 수 있단 우려가 가장 컸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교육철학은 현재 광동학원이 인성교육의 대표주자로 거듭나는 데 크게 일조했단 평이다.

조용기 의정부 광동고 교장은 "광동학원은 역사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거쳤지만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극복, 현재는 인성 · 학업 등 모든 면에서 앞서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동학원은 앞으로도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을 지도할 방침이다. 이천기 교장은 "인성교육이 올바르게 될 때 학력신장도 함께 상승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교과목 중 '종교'과목을 통해 윤리와 인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또 선생님과 학생들 간 존칭쓰기를 생활화하며 교사들이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동학원은 10월 4~10일 건학 7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세부일정은 △서화전(4~10일) △ 강연회 '운허 스님과 광동 70년'(4일 오후 3시 30분) △영상회(4일 오후 2시) △교직원 및 동문회, 학부모 등 체육대회(8일 오전 9시~오후 3시) △광동학원 역사를 담은 사진전(4~10일) △백일장 '운허 스님과 춘원 이광수' 시상식 등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1992년 광동중 교사 증축공사 기공식 현장.


광동학원 설립자 운허 스님(사진 왼쪽)과 정계열 초대교장.

봉선사 등 5개 사찰 주축돼 설립
현재 졸업생 4만3천여명 배출
지역명문 사립학교로 발돋움해
불교 기반으로 인성교육 활성화

숫자로 본 광동학원 70년

1946년 — 설립년도
4만2883명 — 졸업생 수
2,774명 — 재학생 수
258명 — 현직 교사 수
45% — 수도권 4년제 대학 진학률

"最古 금속활자본은 증도가, 송광사서 간행"

박상국 원장, 1년만에 재주장… 학계 파장 예고

30일 보조사상연구원서 발표
당시 정혜결사운동의 수선사
역경사업 중심으로 활동 주장
효봉 스님 조명 논문도 발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 〈직지〉가 아닌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이하 증도가)〉이며, 이를 고려시대 수선사(현 송광사)에서 간행됐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사진〉은 오는 9월 30일 열리는 보조사상연구원 국제학술대회에서 '수선사의 금속활자본 간행'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다.

박 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공인박물관 소장 〈증도가〉(보물 758-2호)가 왜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지를 분석하고, 판각처로 수선사를 지목했다.

박 원장은 미리 배포된 논문을 통해 공인박물관 소장 〈증도가〉가 금속활자본인 이유로 △광곽 △농박도 △활자의 움직임 △보사자 △가필 △쇠똥자국 △철편 등을 다시 제시하고 1년전 지적들을 다시 재반박했다.

광곽에서 제기됐던 "고려시대 당시 중앙정부의 금속기술이 광곽용 금속편을 고르지 못하고 만들 수 밖에 없던 수준은 아니었다"는 반론에 대해 박 원장은 고려시대 정부는 금속활자를 주조한 적이 없으며 당시는 강화 천도 시기였음을 상기시켰다.

이를 토대로 박 원장은 "서지학계 추론대로 1234년 이전 금속활자를 사용했다면, 최충헌이 상정예문을 간행하지 않았을리 없다. 금속활자 주조는 지방에서 산발적으로 했을 뿐이며 〈증도가〉는 수선사가 주도해 최초로 성공한 예"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찰 목판인쇄의 전통은 13세기 새로운 선종운동을 펼쳤던 수선사로 이어져 당시 많은 선종서적이 간행됐다. 마침내 1239년 금속활자를 이용해 〈증도가〉를 송광사서 인출한 것"이라며 "하지만 금속활자 인쇄는 짧게 반짝이다 목판인쇄로 회귀했고, 조선에 이르러서야 다시 부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박상국)이 개최하는 이날 세미나는 조계종 초대 종정 효봉 스님을 조명하기 위해 개최된다. 또한 내년 연구원 창립 30주년을 앞서 축하하는 의미도 담겼다.

'수선사 보조국사와 송광사 효봉'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강건기 전북대 명예교수가 '목우자 지눌의 생애와 사상-사상의 특성과 현대적 의의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며, 최병헌 서울대 명예교수는 '효봉의 전법계보와 보조 가풍의 계승'을 발표한다.

또한 길희성 서강대 명예교수는 '다시 생각해보는 돈오점수론'에 대해, 로버트 버스웰 미국 UCLA 교수는 '효봉 스님 그리고 지눌을 공부다(學訥)'를, 법산 스님은 '효봉의 정화운동과 한국불교의 현실'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다.

신성민 기자

평창 월정사 황혼기 출가학교 개최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문수선원에서 60세 이상 불자들을 위한 '황혼기 나도 출가학교'를 진행한다. '황혼기 나도 출가학교'는 출가를 꿈꾸지만 결정을 망설이는 고령자들이 출가를 체험할 수 있는 과정으로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황혼기 나도 출가학교는 입학고불식을 시작으로 사찰예절 및 발우공양 습의, 적멸보궁참배, 나의 버킷리스트 작성, 108염주만들기, 주지 스님 특강, 서로 붓다되기, 서대 참배 및 오대산 순례, 나의 붓다그리기, 다람쥐 제사 관람, 유언장 쓰기 등 고령자에 맞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스님, 국민연금 가입율 20% 수준

조계종 승려복지회 가입 촉구에 나서… 11월말까지 지원 신청 접수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지현)가 2017년 1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본격 나설 방침인 가운데 스님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승려복지회는 본사 등과 협력해 국민연금 가입 홍보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조계종 스님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20% 수준이라고 밝혔다.

가톨릭과 원불교 등 이웃종교에서 성직자들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스님들의 국민연금 가입은 불교계에서는 이익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국민연금은 개인연금과 달리 연금 수령시점부터 평생동안 계속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물가변동도 반영된다. 2011년 원광대의 조사에 따르면 스님을 비롯한 종교인들의 평균 수명은 82세로 직업별 평균수명에서 1위를 차지했다. 즉, 국민연금 수령 기간이 일반인들보다 긴 것이다. 이에 조계종은 승려노후복지의 기본체계로 국민연금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여기에 다른 비경제활동군보다 월 납입액도 작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액의 9%로 조계종 소속 스님들의 월평균소득은 조계종과 국민연금공단의 협의를 통해 월 40만원으로 산정됐다. 경제활동을 하지않는 가정주부가 99만원으로 계산하여 월 89100원의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것에 비해 매우 낮다.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이 금액 조차 2017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한다. 2017년 월 1만800원, 2018년 1만 8000원에 이어 2019년부터는 전액인 월 3만6000원을 지원한다.

승려복지회 관계자는 "11월 말까지 지원신청자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늘어날 여지가 있다"며 "교구본사와 힘을 합쳐 스님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가입율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세계 차문화를 한자리에

차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2016명원세계차박람회(이하 세계차박람회)가 개최됐다. 세계차박람회는 9월 20일 서울 COEX B홀에서 개막식을 열고 4일 간 이어지는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김의정 (재)명원문화재단 이사장은 "우리 전통 차 문화와 차 문화콘텐츠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었다"며 "이번 박람회는 차 문화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 앞으로 박람회를 통해 우리 문화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 전통문화와 차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이날 개막식에서는 '명원국제차문화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올해 수상자로는 공로상에 공재성 대구MBC 국장, 학술상에 유양석 국민대 교수, 교육상에 이정민 명원문화재단 대구6지부장이 선정됐다.

신성민 기자



1371(2016)주년
개 산 대 재
영 / 축 / 문 / 화 / 축 / 제

영축총림 통도사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TEL. 055-382-7182, 381-1442 FAX. 055-382-7196

1371(2016)주년 영축문화축제 행사 일정표

일자	시간	장소	주요내용
9월 19일 ~ 10월 10일		도량내	오색초롱등 장엄
9월 26일 ~ 10월		도량내	국화 장엄
9월 29일 ~ 10월 16일		총림문 ~ 박물관	양산 축제
10월 1일 ~ 10월 17일		보행로	괘불 대전
10월 2일	10시	해장보각	세미나 - 통도사 개산대재의 문화적 가치에 대하여 -
10월 8일	09시	산문주차장 의식 → 보행로 → 일주문 → 괘불대	괘불 이운
	10시 30분	괘불대	괘불 헌공
	13시	박물관	괘불 특별전
	14시	부도전	부도 헌다례
	15시	부도전	들차 시음회
10월 9일	09시	해장보각	영고재
	10시 30분	설법전	봉축 법요식
	11시	설선당 앞 마당	만발 공양
	13시	설선당 앞 마당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